

## 전자부품 · 소재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의 중요성



김 호 기  
한국과학기술원  
hgkim@cais.kaist.ac.kr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1세기 핵심 기술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정보 테크놀로지 (Information -Technology, IT)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전자부품 · 소재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관련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책입안과 R & D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부족, 첨단기술인력 및 연구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설비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 및 산업화에 투입될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전자부품 · 재료 설계사업의 경쟁력 기반 구축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대학 및 관련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1996년 6월에 전자부품 · 재료설계 인력교육센터(EMDEC)를 설립하였습

니다. EMDEC에서는 센터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전자부품 · 재료분야 기업체 기술인력에 대해서, 전문기술 교육강좌, IT 교육강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등의 현장지향형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급변하는 첨단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술지도 및 자료를 통하여 제공하여 왔습니다.

우수한 현장지향형 산업기술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전자부품 · 재료기술 분야의 산업체 R & D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지향적인 R & D에 대한 Needs를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따라 잡을 수 없는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공립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R & D Needs에 대응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전자부품 · 소재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사업과 더불어 전자부품 · 소재 R & D 사업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육 사업과 R & D 사업의 상호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정보 공유화를 통해 기업의 공통 애로기술에 대한 기반기술을 확보한다면, 급변하는 국 · 내외 신기술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 뿐만아니라 국내 전자부품 · 소재산업의 수준을 단시일 내에 급성장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